

'선미촌 2.0 프로젝트' 추진

전주시, 8월까지 10억원 사업비 투입해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선미촌을 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올해를 선미촌의 성매매 종식의 원년으로 삼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주민 공동체 활동을 더 확대하는 '선미촌 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주시는 올해를 선미촌의 성매매 종식의 원년으로 삼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주민 공동체 활동을 더 확대하는 '선미촌 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선미촌을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만드는 대표사업으로 오는 8월까지 문화예술복합공간을 조성기로 했다. 문화예술복합공간은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324㎡ 부지에 2층 규모로 공연과 전시, 회의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과 커뮤니티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시는 또 선미촌의 기능을 전환하고 서노송예술촌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노송예술촌 P(통합브랜드)를 제작하고 슬로건도 공모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들의 기피공간인 어두운 선미촌 골목길을 문화예술골목(기억골목)

을 탈바꿈시키고 주민들의 문화예술 공동체 강화를 위해 △서노송예술촌 주민기획단 구성 △문화해설사 양성·운영 △주민 사진동아리 운영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시는 선미촌 일대 권삼득로 주변의 기반시설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전주지방검찰청·완산경찰서·전주세무서·완산소방서 등과 함께 성매매 및 업소 탈세 여부, 불법건축물의 소방법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선미촌을 인권과 예술의 공간으로 만드는 데 힘을 모으고 자활사업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김윤상기자

'공적 마스크 알리미' 서비스 운영

전주시청 홈페이지서 마스크 판매처·재고 현황 정보 제공

전주시가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17일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공적마스크 공공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공적 마스크 알리미' 서비스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이로써 시민들은 마스크 재고현황을 알지 못해 장시간 줄을 서서 대기하는 어려움과 여러 판매처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적 마스크 알리미 서비스는 마스크 재고 현황 정보를 △100개 이상(녹색) △99개~30개(노란색) △30개 미만(빨간색) △품절(회색) 등 4단계로 구분해 표현했으며 지도기반으로 구·동별 검색 기능도 제공된다.

다만, 시는 재고현황의 경우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 전송 및 처리 시간으로 인해 실제 판매처 현황과 5~10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당부했다.

/김윤상기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구·경북에 코로나19 성금 지원

전국 기초회의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가 특별재난지역에 코로나19 성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임시회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두 지역에 성금 각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성금지원 대구, 경북지역 확진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협의회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결정됐다.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은 "이번 성



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사

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코로나19 극복 위한 전주형 상생실험 '착한운동' 앞장

사회적기업·온두레공동체·도시재생 마을계획단, 착한 임대·소독·나눔 운동 적극 동참

전주지역 사회적 경제조직과 공동체들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는 사회적기업과 온두레공동체, 도시재생 마을계획단이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착한 임대운동'과 '착한 소독운동', '착한 나눔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큰 동력이 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사회적 경제조직과 공동체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소비위축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착한 임대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첫마중길 권역의 켄트피케이션 방지 협약업체인 김가네 부대찌개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시작으로 '첫마중길 상생협의회의'와 '격리단길 발전협의회'의 노력이 이어져 첫마중길 6개소와 객사길 17개소의 상가가 동참했다.

또 중앙·풍남·노송동 등 전통문화 화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건물주들도 27개 점포에 대해 임대료 인하에 참여했다.

특히 지역의 사회적기업 중 90% 이상이 영세한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 자가건물을 소유한 5개 기업도 월세를 동결·인하하거나 무상임대하기로 결정해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내 집과 가게, 주변 골목길 등을 함께 소독하는 '착한 소독운동'에도 힘을 실었다.

100여개의 사회적기업과 70여개의



전주지역 사회적 경제조직과 공동체들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온두레공동체, 5개소의 마을단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 중인 범시민 일제 소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과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착한 나눔운동'도 적극 추진했다.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의 경우 전주시청에 누이단팔방 2300개를 기부하고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도 산별진료소 근무자들을 위해 생화탕 200여개를 전달했다.

사회적기업 '천년누리'는 대구·경북 의료진들을 위해 2000만원 상당의 전주비빔밥을 후원하기도 했다.

또한 자활사업단 '한뎀'에서는 사회적기업 현장업무 근로자들을 위

해 면마스크 500개를 기탁했고 사회적기업 '연을담다'와 새샘노인복지센터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해 면마스크를 각 1000개를 후원했으며 사회적기업 '꼭두'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팝업동화책 500여권을 기부했다.

온두레공동체 회원 150여명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마스크 22만장에 대한 포장 봉사에도 참여하는 등 '착한 나눔운동'에 앞장서왔다.

향후에도 시는 온두레공동체, 사회적기업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으로 전주다운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100여개의 사회적기업, 60개의 공동체를 육성, 지원할 방침이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임산부 3500명 대상 마스크 지급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1인당 10매씩 자택으로 등기 발송

전주시가 면역력이 약한데다 외출도 어려운 임산부를 위한 마스크를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임산부 3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매씩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산부는 마스크 구매를 위해 장시간 줄서기가 힘들고 감기에 걸리면 약을 함부로 먹기도 어려운 건강 취약계층이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태아에게 직접 전파되는 '수직감염'의 과학

적 근거는 없지만 조산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산부의 자택으로 마스크를 등기발송기로 했다. 부재로 인해 미수령했거나 누락된 임산부는 보건소 방문 후 직접 수령하면 되며 임부의 경우에는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산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 대리인의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류를 지참하면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복

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5세 이상 심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5만여명에게 1인당 5매씩의 마스크를 1차 지급했다.

이어 이달 중에 1인당 5매씩의 2차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임산부 마스크 지급과 관련 문의는 전주시 콜센터(063-222-1000)나 전주시보건소(063-281-6280~7)로 전화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